

# 책으로 읽는 학생운동사의 큰 줄기

## ‘학생의 날’ 맞아 살펴본 한국학생운동 관련도서

11월3일은, 1929년 광주 한인고등보통학교 학생과 일본 중학생간의 충돌사건이 불씨가 되어 광야를 사르듯 전국적인 항일운동으로 퍼져나갔던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학생의 날’이 62주년을 맞는 날이다.

멀리는 일제하의 3·1독립운동과 항일광주 학생운동에 수맥을 대고 해방후에는 한국현대사에 새장을 연 4·19혁명을 정점으로 6·3한일회담반대, 70년대 유신하 저항운동, 80년 5·18, 87년 6월항쟁으로 면면이 이어지는 ‘한국학생운동’은 정권이 퇴행을 음모하는 시점이면 언제나 펼쳐어나 우리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는 막대한 책무를 담당해왔다.

그런 까닭에 우리사회에 있어 학생운동의 위치와 역할은 한 부문운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상을 지닌다. 그것은 학생운동 이외의 다른 운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던 6,70년대는 물론, 80년대 이후 전체 민족민주운동이 각 부문에 걸쳐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왔던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마찬가지다.

### 해방전 학생운동 정리·평가 비교적 활발

우리의 학생운동사를 광복을 전후로 이분해할 때 일제하 학생운동의 이념이 민족독립이었다면 해방후 학생운동의 이념은 반외세 민족주의 및 반독재 민주주의로 특징지어진다.

해방전 항일학생운동을 살필 수 있는 저서로는 1929년 발발한 광주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항일학생운동사 전반을 조감한 「日帝下 光州 學生民族運動史」(한정일 / 전예원 / 1981)과 反日독립운동사의 한부분으로 항일학생운동사를 서술하고 있는 「抗日學生民族運動史研究」(정세현 / 일지사 / 1975)가 우선 꼽힌다. 그의 빼놓을 수 없는 저서로 「일제하한국학생 독립운동사」(김성식 / 정음사 / 1974)와 당시 운동에 참가했던 이들 가운데 생존자와 유족들이 모여 만든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가 당시의 자료들을 충실히 모아 방대한 분량으로 엮은 「광주학생 독립운동사」(국제문화사 / 1974), 그리고 이보다 좀 오래전에 발간된 「抗日學生史」(양동주 / 청과 / 1960) 등이 있는데 해방전 학생운동에 대한 조명은 비교적 다각도로 이루어져 있는 편이다.

80년대 후반 이후 새롭게 활기를 띤 일제하 학생운동에 대한 연구는 항일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올바른 성격규명에 관심을 두고 있다. 1929년 광주에서 윗기한 학생시위운동은 결코 한·일학생간의 충돌이 원인이 된 우발적인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학생운동의 위상은 한 부문운동의**

**그것을 훨씬 넘어선다. 학생운동**

**이외의 다른 운동이 제대로 성장치**

**못했던 70년대 이전은 물론이고,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역량이 상당히 발전된**

**80년대 이후에도 학생운동은 여전히**

**우리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추동력이 되고 있다.**

항일운동이 아니라 당시 광주의 학생운동계는 11·3충돌을 조직적인 항일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만큼 역량을 갖춘 비밀결사조직이 있었고 이 조직의 전통은 1926년 ‘성진회’가 결성되면서 시작된다. 이미 1920년대에는 많은 학교에서 독서회를 조직, 사회과학 공부를 통해 主義·思想운동을 전개하는 등 反帝운동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1930년대 이후 일제의 탄압이 극심해지자 많은 학생들은 지하로 들어가 비밀결사를 통한 활동에 주력했고, 1940년 학병, 징집, 강제징용이 강요되면서 학생운동은 거의 다 지하로 들어가버리고 만다.

해방후에서 8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일어났던 학생운동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은 그 운동의 가열감과 역할에 비해 아직 시기적으로 근접해 있어서인지 그다지 많지가 않다. 6·3세대의 대표적 인물로 현재 민중당 사무총장으로 있는 이재오(46)씨가 펴낸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형성사 / 1984)가 史的 정리로는 거의 유일하다. 이 책은 40년대에서 70년대까지의 학생운동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개관하면서 해당기간에 일어났던 주요사건의 내용과 배경,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살펴본 이름 그대로 해방후 學生運動史를 충실히 기술하고 있다.

그밖에 80~87년 사이의 학생운동을 사상이론과 조직노선을 중심으로 살펴본 「80년대 학생운동사」(강신철 외 / 형성사 / 1988)와 역시 같은 시기에 학생운동 내부에서 치열하게 제기되었던 쟁점을 중점적으로 해설하고 있는 「학생운동논쟁사」(편집부 편 / 일송정 / 1988), 그리고 87, 88년 사이 펼쳐졌던 학생운동의 경험을 총괄하여 성과와 한계를 반성하고 89년의 정세분석 및 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해



4·19 5주년을 맞는 1965년 4월19일 서울 중앙동에서 빗속의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는 학생들. (구와바라 시세이 사진집 「촬영 금지」(눈빛)중에서)

놓은 「80년대 후반 청년학생운동」(조지훈 / 형성사 / 1989) 등이 대체적인 목록이다. 특히 70년대 학생운동사가 「학생운동의 전망」(1982)이라는 비합법적으로 제작된 알파한 소책자에 의해 정리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80년대 학생운동사에 관한 작업들이 많은 것은 이 시기 학생운동의 눈부신 발전과 관계 깊다.

「해방후한국학생운동사」에 의하면 해방후 학생운동은 크게 3기로 구분된다. 1945년 8월15일에서 1948년 12월까지의 좌·우대립기를 제1기로, 1960년 2월28일 대구 경북고를 위시한 대구시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유당 독재에 항거하며 가두로 뛰어나오면서부터 1979년 10월26일 박정권이 무너지기까지의 약 20년간을 제2기로, 1979년 10·26이후 80년대를 거쳐 지금까지를 제3기로 나누고 있다.

1948년 12월 11개 학교의 민주학련 지하조직 119명이 검거됨으로써 끝이 난 1기 학생운동은 1949년 4월 중앙학도회교단이 서울운동장에서 결성된 이후 6·25를 거쳐 59년 재일교포 북송반대 데모에 학생이 관제동원될 때까지는 사실상 학생운동의 공백기이며 암흑기에 해당된다.

### 서울중심의 서술, 전국적 관점으로 넓혀야

그러나 이듬해 노도처럼 일어난 4월혁명은 우리현대사의 새로운 장을 연 획기적인 사건이자 民權의 승리로 귀중한 의미를 갖는다. 그 뒤 학생운동은 30여년에 걸쳐 즐기던 민주화운동의 전통을 이루게 된다. 4월혁명의 이념이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부정되면서 학생운동은 韓日회담반대, 3選改憲반대를 거쳐 70년대에는 강압적인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계승되었다. 한편 그 사이에 국가주도로 급

속히 이루어진 산업화는 관료주의의 병폐와 더불어 빈부격차의 심화, 도시화에 따른 방대한 노동자·빈민층의 형성, 농민문제 등 이른바 ‘기층민중’의 생존권을 사회문제로 부각시켰고,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노동현장으로 진출, 강한 민중성을 얻게 된다.

80년대 학생운동은 다시한번 질적으로 비약하는데, 이를 이끈 원동력은 ‘광주사태’의 경험이었다. 특히 학생들이 주목했던 군부정권과 미국의 유착이 대학가에 폭발적인 反美운동의 확산을 가져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80년대 후반에 와서는 광범위한 세력연합으로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도 상당한 성공을 이뤘다.

이같이 우리 현대사의 질곡만큼이나 숨가쁘게 전개돼온 학생운동의 역사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에 관련된 책으로는 그 발전양상을 제대로 읽어내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80년대 이후의 학생운동을 다루고 있는 몇몇 책들은 우선 목차에서부터 MT-MC, NL-CA 등 학생운동류의 용어나 약어가 난무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간접적으로나마 학생운동의 경험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알아듣기 어렵다.

또한 학생운동 자체가 몇몇 핵심운동가들의 논쟁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 정도로 폭넓은 대중운동으로 성장했고, 지방의 학생운동도 결코 서울에 못지않은 역할을 이루어온 만큼 앞으로 씌어질 학생운동사는 광주학생운동 이후의 전남지역학생운동의 발전, 부림사건과 미문화원 방화사건 이후의 부산지역학생운동 등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국적인 관점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폭넓은 대중들에게 함께 읽힐 수 있는 균형잡힌 관점의 학생운동사가 기다려진다. — 정혜옥 기자